

해제: 니시키 모토사다와 조선영화

이화진(영화사 연구자)

일러두기

1. 본문 중 특정 자료 언급 시 한국영상자료원의 관리번호를 병기하였습니다. 병기된 관리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자료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이 글의 저작권은 필자와 한국영상자료원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해제 글을 인용할 시 필자명 및 출처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컬렉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명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표시 예: 한국영상자료원 "시나리오 작가 니시키 모토사다 컬렉션: 조선영화 편")

1. 재조선 일본인 작가 니시키 모토사다

영화 <집없는 천사>와 <병정님>의 시나리오를 쓴 니시키 모토사다(西龜元貞, 다른 이름 西木元貞, 西元貞, NSK, 1910-1978)는 영화 경력을 식민지 조선에서 시작한 재조선 일본인 작가였다. 1910년 일본 요코하마(横浜)에서 태어난 그는 부친 니시키 산케이(西龜三圭)가 조선총독부에 전임하면서 가족과 함께 조선에 이주했다. 니시키 산케이는 교토제국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관계(官界)에 입문한 인물로, 1924년에 조선총독부 위생과 기사로 조선에 부임한 후 총독부 위생과장(1930-1942)과 소록도갱생원장(1942-1945)을 역임했다.¹⁾

니시키 모토사다는 유아사 가쓰에(湯淺克衛, 1910-1982), 나카지마 아쓰시(中島敦, 1907-1942) 등 다른 재조선 일본인 2세 작가들과 비슷한 경로를 거쳤다. 10대 중반의

나이에 식민지 관료의 아들로 조선에 온 니시키는 경성중학교를 다녔다. 중학 졸업 후에는 일본으로 돌아가 히로시마고등학교를 거쳐 도쿄제국대학 법학부에 입학했다. 이 시기 그는 막연하게나마 예술에 대한 동경을 품은 문학청년이었던 듯하다. 경성중학 동문인 유아사 가쓰에가 『가이조(改造)』의 현상소설 모집에 가작 입선한 단편 소설 「간난이(カンナニ)」를 1935년에 『분가쿠요론(文學評論)』에 발표한 이듬해, 그는 『슈칸아사히(週刊朝日)』가 주최한 '제4회 현상모집 사실소설'에 응모해 가작 입선했다.²⁾ 유아사 가쓰에처럼 니시키의 첫 소설도 조선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였지만, 일본 문단에서 활동을 이어간 유아사와 달리 그는 도쿄제대를 중퇴하고 조선으로 돌아왔다.

1) 니시키 산케이의 인물 정보 및 조선총독부 및 소록도갱생원 근무 이력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의 '한국근현대인물자료', '직원록자료', '조선총독부 관보' 등을 참조했다.

2) 시모카와 마사하루, 송태욱 옮김, 『식민지 조선의 시네마 군상: 전쟁과 근대의 동시대사』, 뿌리와 이파리, 2019, 300쪽.

다시 조선에 온 니시키 모토사다는 조선총독부의 일본어 기관지인 경성일보사에 기자로 취직했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니혼에이가(日本映画)』 1939년 8월호에 수록된 좌담회 보고 기사 「조선영화의 현상을 말한다」 중 ‘경성일보 니시키(西木)’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니시키’가 바로 그다.³⁾ 경성일보 학예부에서 주로 영화 분야를 담당한 그는 발성영화 제작 시대를 맞아 새로운 활기로 들뜬 조선영화계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신작 영화나 영화계의 동향을 꾸준히 보도했다. 니시키는 무기명 기사뿐 아니라 ‘NSK’라는 필명으로 기획성 있는 기사를 발표해 영화 담당 기자로서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가령, 1938년에 조선영화주식회사가 성봉영화원의 의정부스튜디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분쟁을 통해 조선 내 영화기업들의 취약성을 다룬 「반도영화계의 문제: 최근의 ‘성봉 사건’을 빌려서」 같은 기사가 그러하다.⁴⁾ 또한 일본의 영화평론가 이와사키 아키라(岩崎稔)가 만주를 거쳐 조선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기획된 「반도영화를 말한다: 이와사키 아키라 씨를 둘러싸고」 좌담회에서도 그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다.⁵⁾

성봉영화원과 일본의 신코키네마가 제휴한 영화 〈나그네〉(이규환, 1937)를 계기로 일본과 조선의 합작이나 조선영화의 로컬 컬러가 활발히 논의되던 이 시기, 니시키는 조선영화의 방향과 활로를 모색하던 새로운 세대의 영화인들과 교류했다. 특히

고려영화협회의 이창용과 최인규는 이후 그가 ‘영화인 니시키’의 삶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⁶⁾ 니시키는 고려영화협회가 1939년에 『경성일보』의 자매지인 『경일소학생신문』이 주최한 현상공모에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상을 받은 우수영의 작문을 영화화한 〈수업료〉의 기획자로 참여했다.⁷⁾ 그동안 경성일보 기자로서 조선의 문화계 인사들과 교류했던 니시키는 〈수업료〉를 계기로 영화 제작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섰다고 할 수 있다.

니시키 모토사다의 이력 중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조선총독부 도서과 영화검열계 촉탁(囑託)으로 있었다는 사실이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니시키는 1939년부터 1940년까지 월 수당 100원을 받는 촉탁으로 일했다.⁸⁾ 1939년 8월에 ‘총독부 활동 사진검열실’의 지시와 후원 아래 조직된 조선영화인협회의 감사로 이름을 올린 것도 영화검열계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과 관련된다.⁹⁾ 니시키가 검열에 관계하는 동안 조선총독부가 나서서 검열수수료를 면제해 준 첫 번째 극영화는 공교롭게도 (그가 기획으로 참여한) 〈수업료〉였다.¹⁰⁾ 1940년 상반기 동안 〈지원병〉(안석영, 동아흥업)과 일본영화 〈해군폭격대(海軍爆撃隊)〉(도호)까지 세 편의 극영화가 검열수수료를 면제받았

3) 「좌담회 보고: 조선영화의 현상을 말한다」, 『일본영화(日本映画)』, 1939년 8월 1일호;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사연구소 엮음, 『일본어 잡지로 본 조선영화 2』, 한국영상자료원, 2011, 197-208쪽.
4) 「半島映畫界の問題, 最近の“聖峰事件”に藉りて」, 『京城日報』, 1938.7.22; 강태웅·함충범 편역, 『시나리오 및 영화 평론 선집』, 역락, 2021, 315-317쪽.
5) 「岩崎氏を圍んで座談會“半島映畫を語る”」, 『京城日報』, 1938.11.4.-1938.11.8; 위의 책, 342-356쪽.

6) 『식민지 조선의 시네마 군상』을 집필한 시모카와 마사하루가 유족과의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서술한 바에 따르면, 니시키는 이창용, 최인규 등과 가깝게 교류했다. 시모카와 마사하루, 앞의 책, 301쪽.
7) 니시키의 참여 사실은 1939년 6월에 보도된 다음 기사에서부터 확인된다. 「고영(高映) 제2회 작품 〈수업료〉 제작 스태 결정」, 『동아일보』, 1939.6.17.
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의 ‘직원록자료’ 참조.
9) 「영화법 실시의 외곽단체 조선영화인협회 창립」, 『조선일보』, 1939.8.18.
10) 「〈수업료〉 검열료 면제」, 『조선일보』, 1940.4.16.

으니 〈수업료〉가 유독 ‘혜택’을 누렸다고 하기는 어렵다.¹¹⁾ 다만, 그가 ‘조선영화령’(1940) 공포를 전후한 시기에 영화 검열에 관여했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 영화 통제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관심은 ‘어떠한 영화를 보게 할 것인가’로 점차 옮겨가고 있었다. 검열계에서 니시키 모토사다는 금지와 허용뿐 아니라 선전과 교화의 감각을 익히며, 전시체제하 조선에서 어떤 영화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1940년 12월, 니시키는 조선총독부 도서과 촉탁직을 사임하면서 ‘각본가로 전념’할 뜻을 밝혔다.¹²⁾ 어떻게 보면 그는 영화와 영화계를 취재하는 자(경성일보 기자)에서 영화를 검열하는 자(조선총독부 검열계 촉탁)로, 그리고 직접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자(시나리오 작가)로 영화와의 거리를 좁혀나갔다고 할 수 있다. 고려영화협회가 제작하는 영화 〈집없는 천사〉(최인규, 1941)를 집필하며 본격적으로 시나리오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니시키의 전시체제하에서 조선의 민간영화사들이 해산되고 조선총독부의 주도로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가 출범하자 기획과에 입사해 영화 일을 이어갔다. 니시키 모토사다는 1945년에 일본의 패전으로 귀국하기 전까지 1940년대 전반기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시나리오 작가 중 한 사람이었다.

2. 사진으로 보는 발성영화 시대 조선영화의 풍경들

“시나리오 작가 니시키 모토사다 컬렉션: 조선영화 편”을 구성하는 146점의 사진은 1930년대 중반 이후에 제작된 조선영화의 스틸 사진이거나 촬영 현장 사진이 대부분이다. 그중 많은 수가 니시키 모토사다가 경성일보에 재직하던 시절에 영화사들로부터 보도용 자료로 받아둔 것으로 추정된다. 146점의 사진들을 영화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관련 영화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3점을 제외한 143점의 사진은 1930년대 중반 이후에 제작된 21편의 영화와 연관되어 있는데, 그중 1점은 일본 신코키네마의 문화영화 〈뽀어가는 조선(伸び行く朝鮮)〉(1939년 촬영, 미완성)과 관련된 사진이다. 또한 이상의 목록에서 1937년에 제작된 조선영화와 관련된 사진은 없고 1938년과 1939년에 제작된 극영화는 〈새출발〉(이규환, 1939)을 제외하고 모두 포괄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니시키가 경성일보 학예부에서 조선영화를 담당하는 시기가 1938년부터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이명우, 1939), 〈수업료〉(최인규·방한준, 1940), 〈집없는 천사〉(최인규, 1941), 〈복지만리〉(전창근, 1941) 등 고려영화협회가 제작한 영화들에 대해서 각 영화마다 다수의 사진을 소장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특히 고려영화협회가 만주영화협회와 합작하여 조선, 만주, 일본을 오가며 장기간 로케이션으로 촬영한 대작 〈복지만리〉는 이 컬렉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고려영화협회가 영화의 언론 홍보에 각별하게 에너지를 쏟았음을 짐작하게 하는 동시에, 니시키와 고려

11) 「검열수수료 면제 영화, 매월 평균 30본 이상」, 『조선일보』, 1940.6.29.

12) 「學藝だより」, 『京城日報』, 1940.12.10.

[표 1] 영화별 스틸 사진 규모(수)

*제작연도별 가나다순

영화명	제작연도	제작사	감독	시나리오	규모(수)
아리랑3편	1936	한양영화사	나운규	각본 나운규	1
군용열차	1938	성봉영화원 도호영화주식회사	서광제	원작 이규환 각색 조영필 기쿠치모리오 (菊地盛夫)	6
도생록	1938	경성영화과학공장 천일영화사	윤봉춘	원작 유치진 각본 윤봉춘	6
어화	1938	극광영화제작소	안철영	각본 서병각	4
한강	1938	반도영화사	방한준	각본 방한준 각색 이익(김화량) 김혁	7
국경	1939	천일영화사	최인규	각본 최인규	9
귀착지	1939	한양영화사	이영춘	원작 이영춘 각색 이정호	1
무정	1939	조선영화주식회사	박기채	원작 이광수 각색 박기채	5
뻘어가는 조선	1939 (미완성)	신코키네마도쿄촬영소	스야마 마사키 (須山真砂樹)	-	1
사랑에속고 돈에울고	1939	동극영화부 고려영화협회	이명우	원작 임선규 각색 도무	2
성황당	1939	반도영화사	방한준	원작 정비석 각색 이익(김화량)	5
애련송 (환무곡)	1939	극연좌영화부	김유영	원작 최금동 각색 이효석	1
수업료◎	1940	고려영화협회	최인규 방한준	원작 우수영 각색 야기 야스타로 (八木保太郎) 대사 유치진	14

영화명	제작연도	제작사	감독	시나리오	규모(수)
처녀도	1940 (미완성)	한양영화사	신경균	각본 신경균 각색 전동민	2
그대와나	1941	조선군보도부	허영	각본 이지마 다다시 (飯島正) 각색 허영	1
복지만리	1941	고려영화협회 만주영화협회	전창근	각본 전창근	28
집없는천사◎	1941	고려영화협회	최인규	각본 니시키모토사다 (西龜元貞) 대사 임화	17
창공 (원제:돌쇠)	1941	협동예술영화사 경성영화공장	이규환	각본 이규환 노무라 유야 (野村裕也)	2
신개지	1942	한양영화사	윤봉춘	원작 이기영 각색 박송	10
우르러라 창공◎	1943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	김영화	각본 니시키모토사다 (西龜元貞) 오영진	9
거경전	1944	조선영화사	방한준	원작 세키가와 슈 (関川周) 각본 쓰쿠다 준 (佃順)	12
작품미상	-	-	-	-	3
규모합계					146

◎표기는 니시키 모토사다가 기획/시나리오 등에 참여한 작품을 의미함

영화협회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환기하게 된다. 니시키는 고려영화협회의 첫 개봉작인 〈수업료〉에 기획자로 참여했고, 〈집없는 천사〉를 통해 ‘시나리오 작가’가 되었다.

또 한양영화사가 제작한 영화 역시 〈아리랑 3편〉(나운규, 1936), 〈귀착지〉(이영춘, 1939), 〈신개지〉(윤봉춘, 1942), 〈처녀도〉(신경균, 미완성)까지 4편이 포함되었다. 운영이 어려워진 한양영화사를 1938년에 김갑기가 인수해 재건을 시도했던 시기를 훑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최남주의 조선영화주식회사나 이창용의 고려영화협회처럼 김갑기의 한양영화사도 영화기업으로서 도약할 방법을 모색했지만,¹³⁾ 재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기영의 소설을 영화화한 야심찬 기획 〈신개지〉는 채무 문제 때문에 채권자에게 필름이 2년 가까이 압류되었다가 1942년에 뒤늦게 개봉되었고, 〈처녀도〉는 제작비 문제로 결국 제작이 중단되었다. 그리고 곧 전시체제가 본격화되면서 한양영화사는 해산된다.

컬렉션에는 이전에 니시키가 기획으로 관여했던 〈수업료〉, 니시키의 첫 시나리오 〈집없는 천사〉 외에도 ‘최초의 항공영화’라고 홍보되었던 선전영화 〈우르러라 창공〉(仰げ大空)(김영화, 1943)의 스틸 사진이 여러 점 포함되어 있다. 니시키가 집필한 또 다른 아동영화 〈태양의 아이들〉(최인규, 1944)과 관련된 사진이 없는 점은 아쉽지만, 〈수업료〉, 〈집없는 천사〉, 〈우르러라 창공〉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영화 스틸 사진을 통해 식민지 아동들이 ‘소국민’으로서 호명되고 그들의 ‘어린 마음’이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동원되는 양상을 그려볼 수 있다.

3. 니시키의 시나리오들

니시키 모토사다가 〈집없는 천사〉를 시작으로 조선에서 집필해 제작 및 공개된 영화는 6편으로 알려져 있다(표 2 참조). 니시키는 이 6편의 영화 외에도 영화로 제작되지는 못했지만 몇 편의 시나리오를 더 집필했다. 그중 하나는 〈춘향전〉이다. 조선영화주식회사가 1938년부터 일본의 연출가 무라야마 도모요시(村山 徳義)를 내세워 〈춘향전〉을 영화로 제작하려 한 데 대응해 고려영화협회는 니시키 모토사다에게 〈춘향전〉의 시나리오를 집필하게 했다.¹⁴⁾ 니시키는 당대의 여러 자료를 참고해 시나리오를 완성했는데, 일제 말기의 격변과 조선영화계의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무라야마의 〈춘향전〉도 니시키의 〈춘향전〉도 영화화는 좌절되었다. 그로부터 십여 년이 지난 1958년에 니시키의 시나리오 〈춘향전〉은 일본시나리오작가협회가 펴내는 『시나리오(シナリオ)』 지면에 수록되었다.¹⁵⁾ 그 외에도 니시키가 스파이 영화 〈무기 없는 적(武器なき敵)〉의 시나리오를 탈고했다는 기사가 있지만,¹⁶⁾ 이 영화 역시 제작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니시키가 영화 외에도 조선에서 징병제가 실시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환등사진 〈자 반도의 아이야(自半島の子よ)〉(방한준, 1942)의 원작을 썼다는 기록도 있다.¹⁷⁾

14) 「今度は“春香伝”」, 『京城日報』, 1941.2.16.

15) 西龜元貞, 「春香伝」, 『シナリオ』14(12), 日本シナリオ作家協会, 1958.12.

16) 「スパイ映畫『武器なき敵』製作, きのふ打合會」, 『京城日報』, 1941.8.8.

17) 「幻燈作品成る」, 『京城日報』, 1942.12.19.

13) 「한양영화약진, 〈신개지〉 촬영 수완료코 주식회사 창립을 기도」, 『동아일보』, 1939.9.15.

[표 2] 니시키 모토사다 시나리오 집필 작품 (재조선 기간, 완성작 기준)

영화명	제작연도	감독	장르	특징
집없는천사 [◎] (家なき天使)	1941	최인규	극영화	고려영화협회제작
밝은포도 (明るい舗道)	1942	박기채	문화영화	경기도경찰부위촉교통선전영화
우르러라창공 (仰げ大空)	1943	김영화	문화영화	조선영화주식회사기획 (제작사해산후)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로제작인계 조선군보도부·체신국항공과후원 최초의항공영화
국토방위를위해 (國土防衛のために)	1944	박기채	문화영화	조선군보도부지휘 전시영화제작정신대제1작
병정님 [◎] (兵隊さん)	1944	방한준	극영화	조선군보도부제작
태양의아이들 (太陽の子供達)	1944	최인규	극영화	해군특별지원병선전영화

◎표기는 현재 영화 필름이 남아 있는 작품을 의미함

1945년 이전에 니시키 모토사다가 집필한 조선영화 중 필름이 남아 있는 것은 <집없는 천사>와 <병정님>인데, 그중 유족이 보관하고 있던 <집없는 천사>의 시나리오가 이번 컬렉션에 포함되었다. 앞선 언급한 대로 니시키 모토사다는 총독부 도서과의 검열계 일을 그만두면서 ‘각본가’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했다. 고려영화협회가 제작한 <집없는 천사>는 ‘영화인 니시키’의 출사표라 할 수 있다. 최인규 감독이 연출한 영화 <집없는 천사>는 경성 거리를 떠도는 부랑아들을 구제하고자 향린원을 설립한 기독교계 사회사업가 방수원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등사판으로 인쇄된 시나리오(관리번호 CKO004511)의 지면 상단에는 일본어로 대사와 지문이, 하단에는 등장인물의 조선어 대사가 배치되어 있다. 조선어 대사는 당시 고려영화협회의 문예부 촉탁으로 있었던 임화가 번역한 것이다. 2004년 해외에서 발굴되어 공개된 영화 <집없는 천사>와 비교했을 때, 컬렉션을 통해 공개되는 시나리오의 영화와 차이가 있는 장면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테면, 영화의 결말에서 의사 안인규(강홍식 분)가 향린원생들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이 컬렉션의 시나리오 상에서는 향린원장 방성빈이 연설한 데 이어 원생들이 ‘황국신민의 서사’를 제창하고 라디오체조를 한 후 부인회의 대표자가 연설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시나리오에서나 영화에서나 향린원의 원생들을 모아놓고 일장기 게양식을 하며 ‘황국신민의 서사’를 외우게 하는 마지막 장면은 <집없는 천사>가 국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부합하고 있음을 가시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작자 이창용은 일본에서 있었던 한 좌담회에서 이 영화의 제작 의도가 거리의 부랑아들도 잘 교육하면 ‘충량한 황국신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데에 있다고 말했다.¹⁸⁾ <집없는 천사>는 조선영화로는 처음으로 일본 문부성의 추천영화로 지정되었지만, 공개 직전에 내무성의 재검열을 받고 무려 8분 가량의 분량이 삭제되었다. 어떤 이유로 재검열과 삭제 처분이 내려졌는지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삭제까지 이루어진 ‘매끈한’ 영화에 대하여 문부성은 ‘삭제된 개정판은 추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천을 취소했다. 이로써 <집없는 천사>는 제국 일본 안에서 조선영화의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지위를 확인하게 만든 ‘문제작’이 되었다.

18) 「조선영화신체제수립을 위하여(좌담회)」, 『映畫旬報』, 1941.11.11.;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사연구소 엮음, 『일본어 잡지로 본 조선영화 3』, 한국영상자료원, 2012, 113쪽.

문학연구자 서재길은 캐스팅이 완료되고 추가적인 윤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등사판 시나리오를 발굴해 『아단문고미공개자료총서』(소명출판, 2013)에 수록하고 2004년에 발굴 공개된 영화와 비교하는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시나리오 중 26개 부분이 영화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 중 많은 장면에서 기독교적인 색채가 뚜렷하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부랑아들의 계몽에 헌신하는 주인공 방성빈 목사의 기독교적 배경이 검열에서 걸러졌으리라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¹⁹⁾ “시나리오 작가 니시키 모토사다 컬렉션: 조선영화 편”의 〈집없는 천사〉 스틸 사진 중 방성빈 원장이 원생들과 함께 기도하는 장면(관리번호 DSKT149655_03)이 영화에 등장하지 않는 점도 이러한 추정에 힘을 보탠다. 해방 후 최인규는 〈수업료〉나 〈집없는 천사〉와 같은 영화를 만든 진짜 의도는 “무엇으로 인하여 조선의 가로(街路)에만 거지가 낭자하여야 하는가? 이것을 영화를 통하여 다시금 일본의 위정자에 항의하려” 한 것이라 변명한 바 있다.²⁰⁾ 이것이 설혹 변명이라 하더라도 ‘일본의 위정자’ 입장에서는 ‘식민지의 빈곤 아동’은 불편한 소재였을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배고픔에 시달리고 구걸하고 흠치며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을 ‘황국신민’으로 이끄는 자가 헌신적인 기독교 목사라는 것은 제국으로 향하는 길을 흔들리게 했던 것이다.

4. 사진으로 돌아온 니시키의 조선

1945년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한 후, 니시키는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1949년에 구로사와 아키라(黒澤明)와 공동으로 각본을 쓴 〈지옥의 귀부인(地獄の貴婦人)〉(오다 모토요시(小田基義), 1949)으로 활동을 재개해 1950년대 일본영화계에서 시나리오 작가로서 계속 경력을 이어나갔다. 나루세 미키오(成瀬巳喜男) 감독의 영화 〈분노의 거리(怒りの街)〉(1950), 〈하얀 야수(白い野獣)〉(1950), 〈장미전쟁(薔薇合戦)〉(1950), 다키자와 에이스케(滝沢英輔) 감독의 〈야스고로 출세(安五郎出世)〉(1953), 〈철완 눈물있다(鉄腕涙あり)〉(1953) 등이 그의 필모그래피를 채운다.

니시키 모토사다는 영화 담당 기자로서 1930년대 후반의 조선영화계와 교류하고, 전시체제기에는 시나리오 작가로서 조선영화 제작에 참여했다. 그는 조선영화계에서 활동했던 재조선 일본인들 중 한 사람인 동시에 전후 일본 문화계에서 활동을 이어나간 ‘인양자(引揚者)’이기도 하다. 1920년대 중반에 부친을 따라 이주해 중학시절을 보냈고 20대 중반을 지나 다시 돌아와 청춘을 보낸 조선은 니시키에게 어떤 곳이었을까. 오래도록 그가 소장해온 사진과 그의 첫 장편 시나리오를 통해 니시키의 조선을 그려본다.

19) 서재길, 「〈집 없는 천사〉와 식민지 영화 검열」, 『한림일본학』 27,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5.

20) 「10여 년의 나의 영화 자서-〈집 없는 천사〉」, 『삼천리』, 1948.9.

[참고문헌]

1. 논문 및 단행본

- 강태웅·함충범 편역, 『시나리오 및 영화 평론 선집』, 역락, 2021.
- 서재길, 「〈집 없는 천사〉와 식민지 영화 검열」, 『한림일본학』 27,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5.
- 시모카와 마사하루, 송태욱 옮김, 『식민지 조선의 시네마 군상: 전쟁과 근대의 동시대사』, 뿌리와이파리, 2019.
-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사연구소 엮음, 『일본어 잡지로 본 조선영화 2』, 한국영상자료원, 2011.
- _____, 『일본어 잡지로 본 조선영화 3』, 한국영상자료원, 2012.

2. 신문 및 잡지 기사

- 「고영(高映) 제2회 작품〈수업료〉제작 스태 결정」, 『동아일보』, 1939.6.17.
- 「영화법 실시의 외곽단체 조선영화인협회 창립」, 『조선일보』, 1939.8.18.
- 「한양영화 약진, 〈신개지〉촬영 수완료코 주식회사 창립을 기도」, 『동아일보』, 1939.9.15.
- 「〈수업료〉검열료 면제」, 『조선일보』, 1940.4.16.
- 「검열수수료 면제 영화, 매월 평균 30분 이상」, 『조선일보』, 1940.6.29.
- 「學藝だより」, 『京城日報』, 1940.12.10.
- 「今度は“春香伝”」, 『京城日報』, 1941.2.16.

「スパイ映畫『武器なき敵』製作, きのふ打合會」, 『京城日報』, 1941.8.8.

「幻燈作品成る」, 『京城日報』, 1942.12.19.

「10여 년의 나의 영화 자서-〈집 없는 천사〉」, 『삼천리』, 1948.9.

西龜元貞, 「春香伝」, 『シナリオ』14 (12), 日本シナリオ作家協會, 1958.12.

3. 누리집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